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임핑 디너스타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동역사 관광
- (명절특별행) 10월 10일 10시 30분 공연
- 무선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unashy.co.kr 0801-320-7700



전남 전국체전 D-9

- 광주·전남 전력·예상 기록

광주 김덕현 육상 세단뛰기 7연패 전남 나아름 사이클 3관왕 달린다

제89회 전국체전에서도 1~2위는 경기와 서울의 몫이다. 종목별 고른 전력을 보유한 경기도는 8만6천점대를 득점해 4연패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서울 역시 3위와는 1만3천여점의 차이를 보이며 안정적인 2위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광주=42개 종목 중 카누와 수중, 세팍타크로 등 3개 종목을 제외한 39개 종목에 1천274(선수 946명, 임원 328명) 명의 선수단을 파견, 종합득점 3만여점을 따내 종합순위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지 이점으로 종합3위를 달성한 광주는 지난 2006년 14위(2만 9천여점)에서 한 단계 상승한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개최지 이점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있었지만 역시 광주의 전력은 한 자릿수 지키기에도 벅하다. 대전과 전력이 비슷해 단체종목의 승패 여하에 따라 종합순위 13위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강세인 체조(광주체고)와 지난해 여자불링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룬 불링, 광주여대의 양궁, 수영(HI 코리아)에서 다관왕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단체종목에서는 광주제일고의 야구, 전국 최강의 전력인 정구(동신고와 동신여고), 도시공사의 근대5종이 역시 금메달을 보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광주 13위·전남 3위 목표

경기도 대회 4연패 확실시

또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사상 고등부, 대학부, 실업부에서 모두 우승하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경기도가 올해 또 다른 기록도전에 나선다.

이외에 승마 최준상(삼성전자 승마단)이 마장마술, 수영 자유형 200m의 황준호(광주체고), 여자 일반부 수영 평영·접영 50m에서 김고은·김달은(HI코리아) 자매가 금을 예약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세단뛰기에 김덕현(광주시청)이 7연패에 도전하고, 멀리뛰기에서도 4연패에 도전한다. 110m 허들의 박태경(광주시청)도 3연패에 도전장을 낸다.

◇전남=개최지 전남의 종합 3위 목표는 경북과 싸움에 달려있다. 전남은 42개 종목에 1천779명(임원 445명, 선수 1천 334명)의 선수단을 파견,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살려 5만3천~5만5천점을 획득해 경북을 제치고 3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선수들의 선전과 개최지 인센티브 9천점과 상무, 경찰 축구단이 4천점

을 더하고, 우수선수와 시·군 취업선수, 직장팀 획득점수 4천점을 더하고 고등부가 선전을 펼쳐준다면 충분히 종합3위를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특히 육상 남자 일반의 박주영(한국전력)이 마라톤 금, '금빛 워크스타' 이용대(삼성전기)가 고향을 위해 배드민턴 복식에서 역시 금메달을 따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에서는 남고부 남자일반이 모두 복식에서 금을 예약했고, 전통의 강세종목 레슬링 남고부 장재학·최일성(이상 한림고)과 남자일반 김효섭(삼성생명)이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들을 석권한 불링 최복음(광양시청)은 2인조와 5인조에서 2관왕, 사이클 나아름(전남미용고)은 3관왕에 도전하고, 역시 올림픽에서 기대했던 메달을 따내지 못했지만 체조 김대은·김승일(이상 전남도청)이 개인종합과 종목에서 다관왕에 도전한다.

하지만 전남은 매년 상위권(3~4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경북이 득점폭이 큰 대진종목의 좋은 주점으로 선전이 예상돼 종합3위 달성에 마지막까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권 골프장 오늘부터 그린피 인하

합평 및 담양디너스타CC를 비롯한 전남권 골프장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그린피를 인하한다.

비수도권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됐던 개별 소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해 지방 골프장 그린피가 인하됨에 따라 전남권 골프장의 그린피가 인하된 것.

따라서 담양디너스타CC는 주중 12만원에서 9만5천원, 토요일 20만원서 17만5천원, 일요일 19만원서 16만5천원으로 각각 2만5천원씩 그린피를 인하할 예정이다.

합평디너스타CC는 주중 11만원에서 8만5천원, 주말 18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2만5천원이 인하된다. 또한 합평디너스타CC는 부킹 시간대별 그린피 탄력 적용을 통해 1만원~3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해준다. 추가할인은 골프장에서 일주일 전 부킹상황을 체크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

■ 전남권 회원제 골프장 인하된 그린피

골프장	주중	주말
광주CC	8만원	13만원
골드레이크CC	8만8천원	13만3천원
남광주CC	1부(7만원) 2부(8만원)	12만5천원
담양디너스타CC	9만5천원	토요일 17만5천원 일요일 16만5천원
승주CC	8만원	13만5천원
클럽900	9만원	13만5천원
파인힐스	9만5천원	16만원
합평디너스타CC	8만5천원	15만5천원

(카트비 별도)

다. 추가할인 1부 7시 이전(3만원, 2만원 1만원), 2부 1시 이후(3만원, 2만원, 1만원)

파인힐스는 주중 12만원서 9만 5천원, 주말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3만원 할인된다. 또한 카플회원에게는 팀당 2만원씩 추

가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골드레이크는 주중 12만원에서 8만 8천원, 토요일 16만5천원에서 3만2천원 할인된 13만 3천원으로 인하했다.

남광주CC는 주중 1부 7만원(오전 10시까지), 2부 8만원(10시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 주말 12만 5천원으로 3만5천원을 인하했다.

클럽 900은 주중 12만5천원에서 9만원, 주말 17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3만5천원씩 할인된다.

광주CC는 주중 11만5천원에서 3만5천원 할인된 8만원, 주말 16만 5천원서 13만원으로 3만5천원씩 할인된다.

승주CC도 주중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주말 16만원서 13만5천원으로 각각 4만원, 2만5천원 할인된다. 전남권 골프장 인하된 그린피는 카트비 별도.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재미동포 앤서니 김 한국오픈골프 출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뒤를 이을 재목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내셔널타이틀에 도전한다.

앤서니 김은 2일부터 나흘간 충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파71·7천185야드)에서 열린 제51회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골프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앤서니 김이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한국대회 출전은 처음이다.



코오롱-하나은행 제51회 한국오픈골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재미동포 앤서니 김과 이언 풀터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최 측이 마련한 한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은 올해 PGA 투어에서 두차례 우승을 거뒀고 미국-유럽대항전인 라이더 컵에서 미국의 우승을 이끈데 이어 PGA 투

어 플레이오프에서도 두번이나 3위를 차지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3일 개막

신지애 “오초아 3연패 내가 막는다”



신지애

정교한 아이언 샷·뒷심
오초아에 뒤지지 않아
한국 남자 시즌 7승 기대

LPGA 투어에서 '별들의 파티'로 불리는 비경쟁 대회에 처음 출전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랭킹 1위인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대회 3연패를 막아낼 후보로 꼽고 있다.

평균 26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페어웨이 한 가운데 떨어뜨리는 드라이브샷이나 좁혀준 그린을 놓치지 않는 정교한 아이언 샷은 오초아에게 뒤지지 않는다.

소프트게임에서는 경험이 많은 오초아가 다소 낫다고 하지만 승부사 기질은 오히려 신지애가 앞선다는 분석이다.

5주 연속 대회 출전으로 쌓인 피로도 사흘간 마사지를 받고 푹 쉬어 말끔하게 씻어냈다.

다만 미국무대가 아직 낯선 신지애는 시차 적응이라는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는 점은 불리하다.

둘은 이 대회를 앞두고 각각 한동안 정체를 겪던 우승 행진에 불교를 뒀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지애는 3개 대회 연속 준우승 끝에 지난 26일 한국여자프로골프선수권대회에서 시즌 다섯번째 우승컵을 품어 안았고 오초아는 29일 나비스타클래식에서 7개월 동안 침묵을 깨고 시즌 7승째를 올렸다.

그러나 최정상급 선수만 출전하기에 오초아와 신지애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대회가 아니다. 이 대회에서 무려 5승이나 챙긴 '원조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마지막 출전인 올해 화려한 고별무대를 꾸미겠다는 야심이다.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뒤 승승장구, 세계랭킹 3위까지 올라선 정야니(대만)와



오초아

세계랭킹 4~6위에 포진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폴라 크리머, 크리스티 커(이상 미국)도 경계 대상이다.

신지애를 포함해 출전 선수 20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한국 자매 군단'이 시즌 일곱번째 우승을 일궈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

시즌 2승을 따낸 이선화(22·CJ)와 US여자오픈 챔피언 박민비(20·SK텔레콤), 그리고 한희원(30·힐라코리아), 장정(28·기업은행), 지은희(21·힐라코리아), 최나연(21·SK텔레콤), 김승희(20·힐라코리아), 안필라 박(20·LG전자) 등은 1999년 박세리(31) 이후 맥이 끊긴 한국인 챔피언을 꿈꾸며 출사표를 냈다.

지난 4년 동안 대회 열었던 캘리포니아주 남부 사막지대의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에서 북부 해안 지역으로 대회 장소가 바뀐 것도 변수로 등장했다.

해프론메이골프장은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링크스타일의 코스로 선수들은 강한 바닷바람과 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KLPGA 삼성금융레이디스 오늘 개막

“지존 빠진 국내 그린서 2인자 가리자”

올 상금·다승왕 2위 놓고
서희경·김하늘 점전 예상

금 랭킹 2위 자리를 놓고 서희경과 김하늘의 치열한 점전이 예상된다.

하반기 들어 3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서희경은 상금 3억6천200만원으로 랭킹 2위를 달리고 있고 역시 3승을 거둔 김하늘은 3천400만원 차이로 3위(3억2천800만원)에 올라있다.

하반기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서희경은 중국에서 열린 빈하이레이디스오픈에서 세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자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공동 4위, 지난 주 열린 신세계KLPGA 선수권대회에서는 공동 35위까지 밀렸다.

서희경과 대결을 펼치는 김하늘은 최근 5개 대회에서 우승 1차례를 포함해 한번도 톱5에서 벗어나지 않는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김하늘은 지난 5월 휘닉스파크 골프장에서 열린 휘닉스파크 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서희경과 김하늘의 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올 시즌 준우승만 세차례에 그쳤던



서희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4승 기록에 선 서희경(22·하이트)과 김하늘(20·코오롱)이 삼성금융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다시 만난다.

하반기로 접어들 올 시즌 KLPGA 투어는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상금 랭킹과 다승왕 부문에서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서희경과 김하늘이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10월1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골프장(파72·6천264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 나가신 신지애가 자리를 비운다.

따라서 지존이 없는 사이 4승 달성과 상



김하늘

안선주(21·하이마트)도 이제는 우승할 때가 됐다며 버티고 있다.

지난 해 3승을 거두며 신지애와 어깨를 겨뤘던 안선주는 올 시즌 기필코 우승컵을 안고 편안한 마음으로 12월 LPGA 필리파 잉스쿨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위너스 클럽' 멤버인 홍란(22·민심웨어.2승), 유소연(18·하이마트.1승), 최혜유(18·LIG.1승) 등도 호시탐탐 우승컵을 노리고 있다.

한편 총상금 3억원, 우승상금 6천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Xsports와 J-골프가 오후 1시부터 생중계한다.